

제주지역 신문에 기사화된 기후변화 콘텐츠 분석

Analysis of climate change contents reported on Jeju local newspapers

김병무* · 박원배**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 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결론 |
| III. 분석 대상 및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 국문 초록 >

본 연구는 제주지역 신문의 기후변화에 대한 보도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제주지역 일간지 제주일보, 제민일보, 한라일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01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를 분석하였다. 제주지역의 기후변화 관련 이슈는 2007년 7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부와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 하면서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 먼저, 양적으로 협약체결 이전에 비해 이후 기사의 빈도가 5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내용적으로도 2007년 7월 이전에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제주 지역의 자연생태계가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 주로 기사화 되었는데, 이후에는

*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수료

**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실장

기후변화의 영향에 의한 현재의 상태보다는 기후변화 대응이 부각되고 있다. 대응의 내용은 부정적 예측이나 위기 상황의 조장 등의 기후변화의 심각성만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기후변화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홍보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신문분석은 기후변화 정책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핵심어: 기후변화, 지역신문, 기후변화 원인, 기후변화 영향, 기후변화 대응

I. 서론

최근 환경분야의 핫 이슈는 단연 기후변화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각계각층에서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것은 전세계적으로 20여년 밖에 되지 않았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0여년 전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최근 급격히 부각되고 있다. 그 동안 기후변화는 역사·문화적 접근¹⁾으로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기상 현상이라고 생각해 왔으나 근래에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실 제주는 기후변화에 상당히 민감한 섬지역이지만, 2007년 이전까지는 그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관심이 낮았다. 그러나 늦은 출발만큼 발 빠르게 기후변화에 대응해나갔다. 2007년 환경부와 ‘기후변화대응 시범도’로 협약을 맺으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제주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전략도 수립해나가고 있으며,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World Conservation Congress: WCC)’를 개최하는 등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제주지역의 기후변화 콘텐츠 분석을 위해, 지역 신문에 나타난 기후변화 관련 기사를 분석하여, 제주지역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이슈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고, 기후변화 현

1) 볼프강 베링어, 2009; 브라이언 페이지, 2007.

상의 원인, 영향, 대응의 메커니즘의 변화양상을 분석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기후변화의 개념

기후변화는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이상 기후 현상으로 많은 대중들에게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기후(climate)란 오랜 기간 동안 평균적인 날씨를 말한다. 날씨는 일상적인 기상현상을 나타내는 것에 비해, 기후는 지속적이고 평균적인 기상현상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기후는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기상현상이 일반화된 상태를 말한다(김병무, 2010).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기후변화를 “장기간에 걸친 기간(수 십년 또는 그 이상) 동안 지속되면서, 기후의 평균 상태나 그 변동 속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동”²⁾으로 정의 하였다.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서 말하는 기후변화란 “전 지구 대기의 조성을 변화시키는 인간의 활동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원인이 되어 일어나고, 충분한 기간 동안 관측된 자연적인 기후변동성에 추가하여 일어나는 기후의 변화”³⁾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란 일정한 공간 범위에서 장기간의 시간적 조건을 충족한 기상현상의 통계치를 말하며, 자연적인 변화의 속도를 가속시키는 인위적인 활동으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포함한다.

이러한 기후변화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먼저 기후는 시간적으로 일정하게 지속되지 않고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 서서히 변하고, 다음으로 산업화 이후 인

2) 인간 행위로 인한 것이든 자연적인 변동(variability)이든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후의 변화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3) UNFCCC는 대기조성을 변경시키는 인간 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와 주로 자연적 원인에 의해 일어나는 기후변동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인간 행위에 의한 기후변화”만으로 정의하고 있다.

간의 활동으로 인해 대기 중의 구성물질이 변화하여 급속하게 발생하는 인위적인 요인이 있다. 전자는 크게 세 가지로 태양 에너지의 변화, 궤도 변화(밀란코비치 주기), 화산폭발에 의한 태양에너지 변화가 있으며, 후자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림의 황폐화,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 선진국들의 산업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과다 배출, 과잉 살포된 질소비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신흥 개발국들의 이산화탄소 배출 등이 있다(김병무, 2010). 또한 IPCC에서는 인간 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의 인위적인 요인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의 원인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 시민사회가 받을 영향에 대해 올바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2.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과학의 접근

기후변화와 경제는 수많은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경제는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입장과 동시에 기후변화를 매개로 이익을 추구하는 양면적인 모습을 보인다. 특히 산업화 이후의 경제발전은 기후변화의 인위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 비용 지불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 분야의 맹목적인 비용 지불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이유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기후변화 대응 방안이 경제가 개입되어 각종 거래 등의 경제활동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를 위기인 동시에 기회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새로운 경제적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후변화와 사회의 연구는 시민사회가 기후변화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집단이며, 피해에 대한 필연적인 반응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을 하고 있는 집단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의해 사회가 받는 영향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 예상되는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후전쟁’과 ‘기후난민’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사회가 받는 기후변화 영향의 극단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경험사례이다.

기후변화와 정치의 연구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다. 특

히 지역적인 정치의 수준을 뛰어넘어 국제 정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안드레 푸시(Andre Pusey)와 버티 러셀(Bertie Russell)은 현재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의한 위협뿐만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정치 역시 위기에 빠져 있다고 파악한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이미 기후정치를 넘어서 경제 분야로 옮겨 갔음을 지적하는 것인데, 기후펀드,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는 『기후변화의 정치학』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의 가장 중요한 주체가 국가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는 국가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면서 ‘책임국가(ensuring state)’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책임을 다하는 국가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국가보다 더 강력한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를 뜻하는 것”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휘두를 수 있는 강력한 주체를 말한다.

패트릭 본드(Patrick Bond)는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의 정치경제학 분석틀을 인용하여 ‘기후정치’를 설명한다. ‘공간적 조정, 시간적 조정, 강탈에 의한 축적’의 자본주의 정치이념이 기후정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자본주의 경제 위기의 극복을 위한 정치논리가 기후변화에 의한 위기 극복에도 동일하게 작동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또한 전세계의 많은 연구자들은 기후변화가 현재의 문제이지만, 과거와의 연속된 사건의 결과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책임론적인 시각에서 주장하는 것이긴 하지만, 선진국들의 발전에 소요된 탄소가 현재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노력은 선진국들이 주도하여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 정치는 무정부주의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동 대응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특히, 기후변화와 같은 경제적 부담이 필수적인 문제의 경우에는 각 나라는 인도주의적인 접근 보다는 정치·경제적 이득을 먼저 내세우게 된다. 공공재적 특성을 갖는 환경문제의 본질적인 속성이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의 대응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강대국인 선진국들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먼저 나서지 않는다면, 현재와 같은 국제 정치 상황 속에서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Tim Jones · Sarah Edwards, 2009).

Ⅲ. 분석 대상 및 연구 방법

1. 자료수집 방법 및 기간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종합일간신문⁴⁾ 중에서 제민일보, 제주일보, 한라일보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3개 일간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제주도민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 구독하는 신문들이기 때문이다.

연구기간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기사는 10년간 3개 일간지에 실린 기후변화 관련 내용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기사의 검색은 제목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신문의 기고자가 가장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신문기사의 제목이나 기사의 가장 첫머리에 표현되기 때문이다(차배근 외, 2001).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검색한 결과,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사는 총 130건이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다.

2. 분석틀과 분석 내용의 조작화

본 논문은 기후변화의 사회적 메커니즘으로 원인, 상태, 대응을 분석구조로 설정하였다. 기후변화를 발생시키는 원인에 대한 분석은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규명되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에게 기후변화의 원인이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상태에 대한 분석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기후변화를 역사적인 기록과 비교하고 있으며,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각종 모니터링과 모델링 자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사실전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대응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현재 제주도에서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4) 현재 제주에서는 전국 지역일간지 중에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제주일보(1945. 10)와 1987년 6.29 선언 이후 언론기본법 등의 폐지로, 언론자유시대를 맞이하면서 창간된 한라일보(1989. 4.22)와 제민일보(1990.6.2) 그리고 주간지에서 일간지로 전환한 제주타임스(2004. 3) 등 4개 일간지가 발행되고 있다(고영철, 2006).

기후변화 대응 사업은 무엇이고, 대응 방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은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주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분석하는 수단으로 언론분석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후변화 이슈

분석에 사용된 제주지역 신문에서는 기후변화 이슈의 분석기간을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간에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 조성을 위한 협력 협약을 체결한 시점(2007.7.11)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제주지역 사회는 이 시점을 계기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제주지역 신문에서도 양적인 증가를 확인 할 수 있다.아래의 기사들이 2000년대 초반 제주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기후변화의 영향과 관련된 기사들이다.

〈표 1〉 제주지역 신문의 초기 기후변화 이슈

날짜	신문사	기사제목	비고
2002.11.01.	한라일보	[한라산 생태계 ‘대반란’] “한라산 고산식물 멸종위기”	심포지엄
2003.08.18.	한라일보	지구온난화와 한라산	칼럼
2003.09.16.	한라일보	지구온난화로 생태계 변화 : 제주에도 이상징후 곳곳 나타나	기획기사
2003.09.17.	한라일보	제주도가 달궈지고 있다	기획기사
2006.08.07.	제민일보	더워지는 제주 재앙 온다	기획기사
2006.08.08.	제민일보	온실가스 억제해도 50년간 기온상승 지속	기획기사
2006.08.09.	제민일보	제주바다 ‘이상 징후’ 뚜렷	기획기사
2006.08.14.	제민일보	해수면 상승·환경파괴 재앙 예고	기획기사
2007.03.09.	한라일보	한라산 지구온난화 ‘직격탄’	연구보고서
2007.03.26.	한라일보	온난화 ‘대재앙’ 전조 잇따라	기획기사

〈표 1〉의 기사들은 2007년 환경부와 협약을 맺기 이전에 제주지역 신문에 등장했던 기후변화 관련 기사들이다. 2007년 7월 이전에는 거의 대부분의 기사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 기록하는 수준이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기후변화’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지구온난화’, ‘이상 기후’ 등이 주요 이슈로 다루어졌다. 또한 기후변화 현상의 원인과 대응 등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여 현재의 상태에 대한 일률적인 진술에 불과한 기사가 많았다. 하지만 기후변화 영향에 대해 서서히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기획기사가 증가한 점 등은 기후변화 현상을 사회적 이슈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07년 7월 이후부터는 기후변화 관련 이슈가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다. 먼저 양적인 기사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 7월 이전에는 전체 기사의 20% 정도에 해당하는 27건이 기사화 되었는데, 이후에는 103건의 기사가 작성되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2007년 7월 환경부와 맺은 협약이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표 2〉 제주지역 신문의 기후변화 기사 구분

구분	2007. 7. 11. 이전	2007. 7. 11. 이후	계
기후변화의 원인	1	5	6
기후변화의 영향	15	40	55
기후변화의 대응	11	58	69
계	27	103	130

다음으로 기사의 양적인 증가 이외에도 기사에서 다루는 내용의 변화도 눈에 띈다. 2007년 7월 이전에는 기후변화 영향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상태 위주의 기사가 많이 작성되었다면, 이후에는 기후변화의 원인에 관련된 기사에서부터 대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기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기후변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현상에 대한 기술에서 벗어나 원인을 분석하여 대응해야만 하는 현재의 상황을 인식했다는 점이고, 기후변화의 영향이 인간의 생존을 위협할 만한 수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또한 제주지역 언론이 기후변

화를 사회문제로 받아들여 정치·경제·사회를 비롯한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 제주지역 신문의 후기 기후변화 이슈

날짜	신문사	기사제목	비고
2007.10.16.	한라일보	기후변화 적극 대처한다	
2007.12.12.	한라일보	道, 한라산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2007.10.05.	제민일보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개발	
2007.12.27.	제민일보	“기후변화 ‘맞춤형’ 경제 재편을”	강의요약
2007.10.30.	제주일보	기후변화 등 현안 공동대응	회의
2008.02.22.	한라일보	온실가스 감축 ‘발등의 불’	기획기사
2008.03.24.	한라일보	기후변화 대응, 실천 가능한 일부부터	사설
2008.02.04	제민일보	제주바다 기후변화 적극 대응	
2008.05.21.	제민일보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세계는 지금’	칼럼
2008.03.27.	제주일보	기후변화 대응 사업 본격화, 경제·환경피해 최소화 주력	연구 보고회
2009.11.18.	한라일보	시급한 기후변화 대응 마스터플랜	사설
2009.03.06.	제민일보	기후 온난화 대응책 서둘러	사설
2009.05.19.	제민일보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완벽 기해야	사설
2009.05.09.	제주일보	온난화 속도 따라잡을 대책을	사설

요약하자면, 제주지역의 기후변화 관련 이슈는 2007년 7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부와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 하면서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 먼저, 2007년 7월 이전에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제주지역의 자연생태계가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 주로 기사화 되었는데, 이후에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의한 현재의 상태보다는 기후변화 대응이 부각되고 있다.

2. 기후변화 원인과 대응의 메커니즘

1) 기후변화의 원인

이론적 배경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기후변화의 원인은 인간의 인위적인 활동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석에 사용된 제주지역 신문에 등장한 기후 변화 관련 기사 중에서 기후변화의 원인을 언급한 기사는 극히 일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사의 중간에 간략하게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 이 같은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바로 석유와 석탄 등과 같은 화석연료의 사용이다. 화석연료의 사용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가 대기 중으로 대량 방출되어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것이다. … (한라일보, 2004.02.13)

온실 가스는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 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삭감 대상으로 꼽힌 온실 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불화탄소, 수소화불화탄소, 불화유황 등 여섯 가지다. 이 가운데 이산화탄소는 전체 온실 가스의 60%를 차지,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손꼽히고 있다. … (제민일보, 2007.10.17)

… 산업발달로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농업발전으로 숲이 파괴되면서 온실효과가 커지게 되었다. … 온난화를 일으키는 것은 온실가스로 이산화탄소가 대표적이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양은 산업화와 함께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온난화는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인류활동의 결과이다. … (제주일보, 2008.10.18)

… 지구 온난화는 에너지에 대한 인류의 탐욕과 함께 시작됐다. 인류가 폭식한 에너지로 말미암아 남긴 탄소발자국의 양은 어마어마하다. … (제민일보, 2009.03.19)

이외에도 온실가스 배출의 직접적인 주체를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하였는데, 배출 주체를 분석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것이 현재 당면한 과제이며,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논지로 전개되는 기사는 해당 주체가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변수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 이는 탄소 발생으로 온난화(溫暖化) 등 기후변화의 주된 요인 중 하나인 개인교통을 줄이면서 교통문화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자는 발상. … (한라일보, 2008.03.24)

제주지역 신문에 기사화된 기후변화의 원인은 “인간의 산업 활동 때문이다”라고 간단히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현재 밝혀진 기후변화의 원인과 동일한 것으로 제주지역 언론은 기후변화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후변화의 원인과 관련된 기사는 거의 대부분 칼럼과 사설이었으며, 주요 기사 작성자가 환경 전문 교수, 환경 운동가, 연구원 등의 전문가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기후변화는 이미 어느 한 분야에서 논의해야할 범주를 벗어난 사회문제가 되었으며, 각 계·각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다. 현재까지 신문은 일반 시민들에게 친숙한 정보전달 매체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전문가들의 의견개진은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관심을 증가 시킬 수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의식전환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기후변화의 영향

분석대상이 제주지역 신문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영향은 제주도에서 현재 발생하는 현상 위주로 작성되어 있다. 제주의 자연생태계, 특히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라는 특이성과 한라산을 중심으로 섬이 형성된 점 등은 이상 기후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있다. 한라산의 경우에는 고도에 따른 수목의 형성이 다르기 때문에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수목이 형성되는 고도가 높아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라산의 대표 수종이라고 할 수 있는 구상나무림도 온도에 따른 고도의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제주특별자치도, 2009). 또한 제주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수산업과 농업의 경우에도 제주 연근해 어장의 변화와 열대작물의 제주노지 적응 등이 지구온난화를 확인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철새의 이동 경로와 동·식물상의

변화는 제주지역의 자연생태계가 기후변화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 지구온난화의 징후는 한라산 생태계 변화에서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록적인 강우가 되풀이되고 있고 제주특산인 구상나무 숲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제주조릿대가 한라산 정상부위까지 세력을 확산해 나가는 주된 원인을 지구온난화로 보는 견해도 많다. 중산간이 서식지인 참억새군락이 이제는 한라산 어리목 등산로를 따라 아고산대까지 세력을 뻗었다. … (한라일보, 2003.08.18)

최근 들어 예년 같지 않은 여름철 대표 어종인 한치의 어획량을 놓고 어민들의 각종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해파리 출현, 고래의 출현, 저염분수, 수온상승 등이다. 제주바다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들이다. 지구 온난화와 함께 제주바다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어종들이 북상하고 그 자리를 열대 어종이 채우고 있다. … (제민일보, 2006.08.09)

기후변화의 영향은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발표되고 있으며, 신문은 이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기 때문에 자료는 신뢰할 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의 기후변화 현상을 예측하는 기사도 상당히 많이 작성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은 언론의 특성상 눈에 띄는 기사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파괴·멸종·위기 등의 자극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다.

빠르면 10~20년 사이에 백록담을 중심으로 광활하게 발달하던 눈향나무, 시로미, 산철쭉 군락 등 한라산 정상 일대 식물종이 거의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는 학계의 충격적인 보고서가 잇따라 나왔다. … (한라일보, 2002.11.01)

… 기상학자들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태풍의 에너지원인 수증기량이 증가해 태풍 강도는 더욱 세질 것”이라며 초속 50~70m급 ‘슈퍼 태풍’이 점점 잦아질 것이란 예측을 내놓고 있다. … (제민일보, 2007.11.06)

이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해 불필요한 위기상황을 조장하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오히려 기후변화 대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신문은 사실전달 만으로도 일반 시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기후변화와 같은 국제적이고 생존과 직결된 사회문제 일수록, 그 결과를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인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발생하는 기후변화의 현상이 태풍, 가뭄, 이상 기후 등의 극한 상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접근이 조심스럽다. 하지만 신문이 불확실성이 내포된 기후변화 현상의 예측 결과를 확대해석 하게 된다면, 신문의 기능 중 하나인 계도성을 상실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위기감 조성을 초래할 수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상들이 충분히 위협적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예측되고 있는 기후변화의 영향은 기후변화 대응의 의식을 촉구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3) 기후변화의 대응

제주지역 신문에 기사화된 기후변화 관련 기사 중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이 인간의 생존을 위협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대응 관련 기사는 양적으로 건수가 증가하는 만큼 다양한 방향으로 이슈가 논의되고 있다.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막연한 대응의 필요성 보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실천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발등의 불’로 떨어진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 이에 적응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전략을 국가의제로 부각시키고 지방 자치단체 지원체계도 구축할 방침이어서 제주도 차원의 체계적인 종합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 (한라일보, 2007.06.14)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인 제주지역 탄소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승용차의 신규 등록을 억제하기 위해 총량제를 도입하고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신개념의 교통수단 도입 등 교통수송분야 혁신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한라일보,

2008.02.22)

제주특별자치도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제주일보, 2009.09.25)

기후변화 대응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정부, 기업, 시민사회로 구분되지만, 제주는 기업의 역할을 하는 2차 산업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제주도정의 정책과 도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수준에서 기사가 작성되고 있다. 산업구조의 특징이 기후변화 대응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제주도의 온실가스 배출 구조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4개 분야, 에너지/농·축산/산업공정/폐기물 분야 중에서 산업공정 분야는 전체 배출량의 2%에 그치고 있으며, 가장 많은 배출량을 차지하는 에너지 분야 중에서도 산업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양 보다는 가정과 상업공공 부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이 많다(제주특별자치도, 2010). 이와 같은 자료는 제주가 개인 사업장과 각 가정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 자료라고 할 수 있다.

... 소비의 녹색화는 생산의 녹색화를 부른다. 지구상 그 어떤 기업도 시장이 도전하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았다. 시장을 변화시키는 힘은 소비자 시민들에게서 나온다. ... (제주일보, 2005.04.01)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은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인 만큼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정책의 개발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다. ... (제민일보, 2007.11.07)

... 성패는 역시 도민의 참여 여하에 달려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범 도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탄소배출 억제 및 감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 제주도민이 감축하는 탄소의 양이 비록 기후변화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하겠지만 선도

적인 감축노력은 청정제주의 브랜드가치를 한층 높일 것임에 분명하다. (한라일보, 2008.04.14)

분석 결과, 제주지역 신문에 등장하는 기후변화 대응 기사는 크게 두 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기후변화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기사가 있다. 이와 같은 기사는 기후변화영향을 위주로 작성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2007년 7월 이전에 간헐적으로 등장하였으며, 기후변화가 이슈화되는 초기에 주로 작성되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대응의 방법에 대한 방향제시성 기사가 있다.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을 기본 전제로 작성되며, 여기에는 방향제시에서 그치지 않고, 세부 추진 사업이나 추진 계획 등이 포함 된다. 기후변화 대응의 세부추진 사업은 대체적으로 제주도정에서 연구 사업 등을 통해 계획하는 것과 시민사회 내에서 특정집단이 기후변화 대응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추진하는 사업도 있으며, 기자가 자체적으로 제시하는 사업도 있다. 이는 시기적으로 2008년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대응추진본부’가 구성되어, 제주도정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계획한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다.

3. 제주지역 기후변화의 사실들에 대한 해석

사회 내에서 기후변화는 3개의 이해집단을 갖는다. 첫 번째가 기후변화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피해집단이고, 두 번째가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하는 가해집단, 세 번째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정집단이다. 이는 기후변화 영향의 결과가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반영이다. 그리고 정치(조정집단)·경제(가해집단)·사회(피해집단)가 축소된 위와 같은 집단 설정은 기후변화와 사회의 관계에서 갈등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제주사회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갈등의 이해관계 집단이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정집단으로는 제주도정이 뚜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집단과 가해집단의 구분이 불명확하다. 제주지

역 신문에서 확인된 피해집단은 사회내의 구성체가 아니라 대부분 제주의 자연생태계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2010)의 연구에서 확인되었듯이, 에너지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데,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주체는 일반 가정과 개인 사업장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시민사회는 피해집단이면서 곧 가해 집단이기도 하다. 이는 제주지역 신문이 기후변화 현상에 대해 연구보고서와 전문가 등의 의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제주사회가 받는 실질적인 부문에 대한 관심이 배제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주지역에서 기후변화의 영향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대부분이 생태·환경 등의 자연과학 분야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사회영역이 받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시민사회를 잘 반영하여 나타내야 할 때, 신문 기사 등의 언론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기자의 발굴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보건·건강·교육을 비롯한 사회구조 내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연구자의 전문 분야가 무엇이고, 연구 수행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응에 관한 연구들은 도출되는 결론과 수치들이 다양하고 때로는 모순되어 정책결정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또한 동일한 현상에 대해 결과가 다양하다는 것은 이에 대한 대응책을 세울 경우 대응사업의 강도와 범위에 있어서 중구난방이 될 수도 있다. 즉, 기후변화의 영향과 대응은 위험과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산업연구원, 2009). 이러한 결과를 검토의 과정 없이 기사화 하게 되면, 일반 시민들은 혼란을 겪게 될 것이며, 하나의 사실에 대해 상반된 행동을 취하게 될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분석된 연구의 결과를 보면,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사실보도는 대체적으로 부정적 예측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후변화가 위기라고는 하지만, 현재 영향에 대한 효

과적인 분석과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면, 충분한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는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기후변화를 바라보는 각종 언론을 비롯한 사회적 시각은 건전하고 합리적이어야만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해서 잘못된 정책결정을 내리고 기후변화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우리가 받는 사회·경제적 손실은 그야말로 엄청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문 등의 언론매체가 불확실성이 많은 결과에 대해 확정적인 사실과 같이 보도하거나 부정적 예측, 위기상황의 조장 등을 통해 기후변화의 심각성만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기후변화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홍보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신문분석은 기후변화 정책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몇 가지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사의 형태를 구분하지 않아 스트레이트성 기사, 사설, 기획 연재 등의 구분을 통해 주요 논점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부족하였다. 더 나아가서 보도자료, 행사 등에 의한 단발성 기사를 구분해낼 필요가 있다. 둘째, 제주지역 사회의 주변 배경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지 못하여 신문지면에서 드러나는 사건을 위주로 분석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상과 같은 한계점들은 추후의 연구에서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언론의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연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영철, 2006, 「지역신문의 문화보도 경향: 제주지역일간지 문화·방송 연예면 기사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6권 4호, pp.5~50.
- 김병무, 2010, '기후변화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의식과 행동,'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디디에 오글뤼스텐느, 2009, 『기후 예고된 재앙』, 박수현 역, 알마.
- 마크 마슬린, 2010, 『기후변화의 정치경제학』, 조홍섭 역, 한겨레출판사.
- 볼프강 베링어, 2010, 『기후의 문화사』, 안병옥·이은선 역, 공감IN.
- 브라이언 페이지, 2007, 『기후, 문명의 지도를 바꾸다』, 남경태 역, 예지.
- 앤서니 기든스, 2009, 『기후변화의 정치학』, 홍옥희 역, 에코리브르.
- 오인수, 2003, '기후변화가 농업생산 및 유통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운, 2010, '언론의 특정 지역공간 담론화에 대한 분석,' 『탐라문화』, 36호, pp.301~331.
- 정대연, 2009, '기후변화가 제주사회에 미치는 영향,' 『제주발전포럼』, 통권 제28호, pp.2~9.
- 제주특별자치도, 2010,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제주특별자치도.
- 차배근·오진환·정진석·이광재·임준수·신인섭, 2001, 『우리신문 100년』, 현암사.
- 팀 플래너리, 2006, 『기후 창조자』, 이한중 역, 황금나침반.
- 프레드 싱거, 2009, 『지구온난화에 속지 마라』, 김민정 역, 동아시아.
- 홍옥희, 2008,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협약 문제, 우리나라 언론이 놓치고 있는 몇 가지 관점들,
- IPCC, 2007, 『기후변화 2007: 종합보고서』, 기상청.